

41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Chapter

레 20:22~26, 벘전 1:13~17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36장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오늘 배울



말씀

1. 거룩함의 의미를 올바르게 압니다.
2.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위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따로 구별하다’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분이시며 일체의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뵈는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더불어 사는데 익숙해 왔고 그것을 당연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이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따라서 온갖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내세가 아닌 이생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활 속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 위해 따로 구별되는 것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모든 측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5~16)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because it is written, "Be holy, for I am holy." (1 P 1:15~1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일 3:2~3)

(딤후 2:11~14)

(고후 6:14~7:1)

2. 에베소서 5장 3~7절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려야 할 죄를 모두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해 봅시다.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이러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기록해 봅시다.
3.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PC방이나 노래방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장소에 함께 가자고 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적어 보세요. 또한 분반 친구들과 교제해보고 좋은 방법을 배워 실천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께서 나의 삶 중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동기, 생각, 태도, 말, 행동)을 보여주시도록 기도 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

교제 안에서 깨달은 구원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조금씩 배우고 믿으며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편안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나 감동의 기억이 없다는 것에 대해 구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형제, 자매님과 교제 안에서 생활하면서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동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합 3:18)

거룩의 영역

① **언어** : 우리의 언어는 덕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 험담이나 무의미한 잡담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정직하고(레 19:11, 잠 12:22), 순수하고(엡 5:3~4), 은혜로 워야 할 뿐 아니라(골 4:6), 덕을 끼쳐야 합니다(엡 4:29).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말해야 하되, 특히 성경이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억살이나 농담을 삼가야 합니다(마 12:36~37).

② **기질** :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엡 4:32). 우리의 기질은 억제되어야만 합니다(엡 4:26)."

③ **도덕적인 순결** :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을 창조하셨지만 아울러 그것을 결혼이라는 완전한 테두리안에 제한을 두셨습니다(잠 5:18~20). 세상은 하나님의 표준을 완회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인간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잠 5:1~11, 롬 1:27, 고전 6:18). 구약성경에서 삼손과 요셉은 도덕적인 순결의 영역에서 각각 패배와 승리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예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생명을 잃은데 비해 요셉은 일자리를 잃었으나 후에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순결은 의지적인 행동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하는 사고의 순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고는 성도의 합당한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골 3:1~5, 빌 4:8).

④ **인간관계** :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는데 이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주님은 그들과 접촉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대화나 죄악된 행동이나 세상적인 오락에 참여하도록 자신을 내버려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대인관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그들과 어떤 형태로든 결속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합당치 않은 행동에 동참하거나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죄인들의 도덕적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간증을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도전을 끼치려면 그들과 접촉하되 그 일을 위해서 거룩의 표준을 타협하지 맙시다.

⑤ **의복** :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자신의 간증을 한결 드러내는 복장을 해야지 그것을 실추시키는 복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선행으로 자신을 갖추는 것이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절제된 내면의 미를 풍기도록 주의해야 하며 눈길을 지나치게 끌거나 유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⑥ **기타** : TV나 음악, 인터넷, 쇼핑 등 다른 모든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지(고전 10:31), 시간과 재물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일인지(엡 5:16, 눅 16:9), 죄를 조장하는 일이거나(롬 13:14), 중독성이 있는 일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아닌지(롬 14:13, 고전 8:13), 의심되지 않는지(롬 14:23), 악의 모양을 지니거나 세상에 속한 일은 아닌지(살전 5:22, 요일 2:15~16),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아닌지(고전 6:19), 주님이라면 하실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8)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